

## [ 경제 ]

산부인과



남양·매일유업



제품 많다 했더니

## 병원에 돈 빌려주고 분유 독점 공급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9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기 회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

위증지)과 함께 남양유업이 1억2천만원, 매일유업이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1997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대신 분유를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리는 연 6.37% 수준이었다.

대여금 지원 내역은 남양유업이 85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338억원

을,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줬으며 이를 병원은 해당 자금을 운영비나 건물 증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이같은 조건으로 9년간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 공급한 분유는 12억5천900만원(97.1t),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t)이었다.

따라서 이들 2개 분유업체가 적용했던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천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분유업체가 보다 많은 금액을 병원에 쏟아부었다. 이같은 조건의 거래로 인해 분유업체를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26억6천200만원, 매일유업은 15억8천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처음 먹은 분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해당 분유만을 먹는다는 조제분유의 소비 특성 때문에 이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져 온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현황				
	미국산 쇠고기·송아지 수입 (단위: 1천 파운드)			
	2003	2004	2005	2006
한국	588,617	648	1,077	1,283
일본	918,014	11,609	17,496	51,639
대만	48,891	154	22,394	67,364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단위: 1천 파운드)			
	2003	2004	2005	2006
한국	79,642	71,177	190,085	293,449
일본	349,983	920,851	1,045,956	1,014,521
대만	44,658	98,544	62,828	59,425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급증

최근 3년... 광우병 파동에 쇠고기는 줄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최근 3년간 광우병 파동에 따른 금수조치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육류 및 가축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와 송아지 수입은 128만3천파운드(581t)로 광우병 파동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기전인 2003년도의 5억8천861만7천파운드(26만6천643t)의 0.2%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설됨에 따라 2003년 12월27일 공식적으로 금지된 뒤,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4년과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64만8천파운드와 107만7천파운드에 각각 그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2006년도에 2억9천344만9천파운드(13만2천932t)로 2003년도의 7천964만2천파운드(3만6천79t)에 비해 268.5%(2억2천380만7천파운드)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직 광우병 파동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수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에 걸쳐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만은 아시아 3국중 유일하게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쇠고기 수입은 2006년도에 6천736만4천파운드로 2003년도의 4천889만1천파운드보다 37.8%가 증가했다. /연합뉴스

## 한미 FTA시대

## ■ 금융상품 어떻게 변할까

## 뉴욕서 뜨는 고수익 펀드에도 투자

## 첨단 기법 도입한 파생상품 다양하게 쓸어질 듯

## 서비스 좋고 싼 보험상품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

된 새로운 금융상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상품구조가 너무 복잡해 망설였지만 투자를 하다 보니 수익률을 보는 눈도 생겼다.

얼마 전에는 중국 주식시장보다 한국시장의 수익이 더 좋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구조화 상품에 기입했다.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중국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조정을 받는 반면 최근 기업실적이 좋은 국내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거라는 A씨의 예상에 따라 은행 PB가 만들어준 상품이다.

또 엔화 가치에 연동하는 구조화 상품에도 돈을 일부 넣었다. 앞으로는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평가절상될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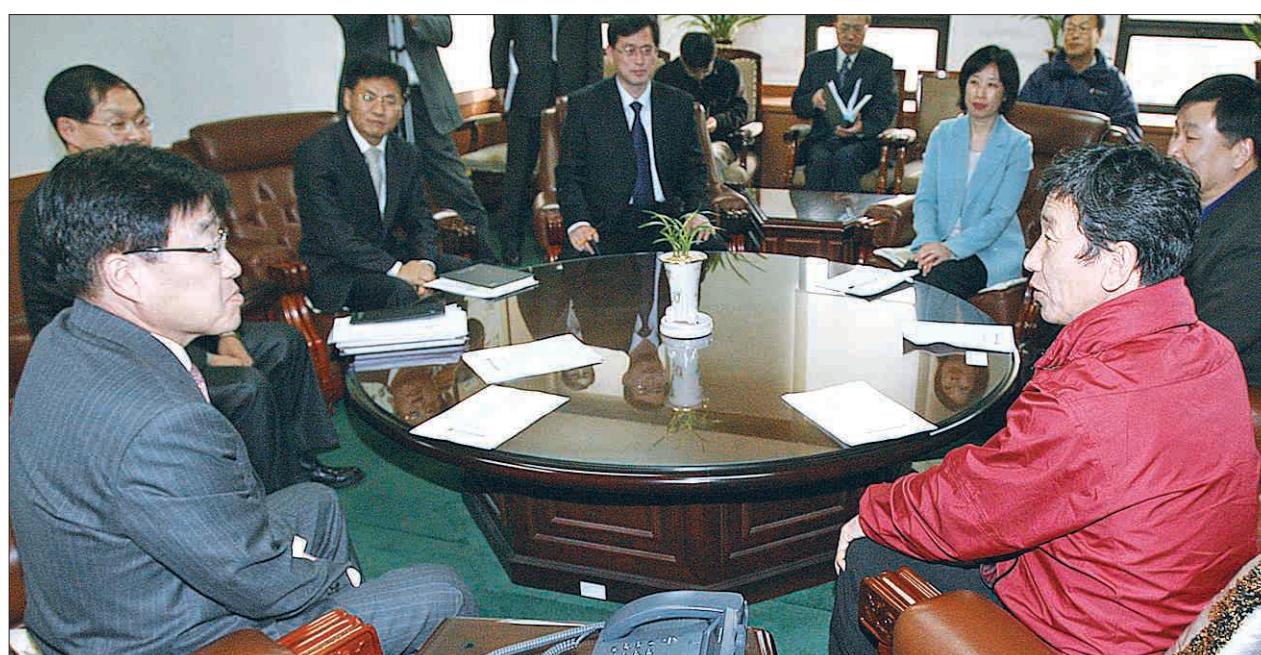
A씨는 골프연습장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증권사 담당 PB팀장의 전화한

통을 받았다. 기다리던 미국계 B 해지펀드에서 자금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해지펀드는 3년간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올려 큰 인기를 끈 상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도 많아 기입 순서를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A씨의 차례가 온 것이다.

A씨의 사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안이 양국 국회를 통과하고 몇 년 후면 A씨처럼 백화점 쇼핑하듯 신금융상품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신금융상품은 비록 국내법이 허용하는 활성화되면서 저렴한 보험상품을 고를 기회가 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중개업체는 국내 업체와 미국계 업체의 보험료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험료 비교표를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고 C업체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도 설계해낸다. C업체는 중개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보험료 인하폭이 더 크다고 판단, 미국계 보험업체와 계약을 했다.

가뜩이나 외국계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미국 보험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은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신금융서비스 개방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상품화돼 있지 않은 보험상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7일 광주시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장관실을 방문, 김영주 산자부 장관(왼쪽)과 산업발전·산별교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원·화·화·화 불공정거래 시정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 또 조작... '묻지마 금등주' 조심

## '루보' 40배 뛰어도 '이상종목' 지정 안해

## 감시시스템 허점... 투자자들만 피해 키워

신종 다단계 수법의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그간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상승한 이른바 '묻지마 금등주'들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불똥이 떨 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하한가 매도 전망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일각에선 지정화되고 있는 주가조작 수법에 비해 뒤처진 시장감시시스템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제

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7일 '묻지마 금등주'의 대표 격인 루보는 전날보다 7천700원(14.98%) 떨어진 4만3천700원으로 추락했지만 거래량은 5천100여주에 불과했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주 이상이 하한가로 매도 주문이 나왔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매물이 소진될 때까지 연속 하한가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타 '묻지마 금등주'도 사정은 비슷했다.

일각에선 시장 당국의 감시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워

웠다는 지적도 있다. 연말·연초부터 '묻지마 금등주'들이 횡행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종목의 투자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주가 조작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발빠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서는 신종 시세조종 수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감시제도만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루보의 경우처럼 6개월 새 40배 가 넘는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상급 등종목 지정 한번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 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뉴욕생명, 보험료 자유롭게 조정

## '무배당 NYL 유니버설보험' 출시

뉴욕생명은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강조한 저축성 상품인 '무배당 NYL 자유설계 유니버설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 증액 및 감액이 자유롭고,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고객의 재정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15년 이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면 일시납 가입도 가능하며,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납입한 보험료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충분하면 보험료가 연체돼도 곧바로 실효되지 않고 최소비율(월 대체 공제액)이 자동으로 납입해 계약 유지도 안정적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약이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부담을 던 것도 장점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관세 체납자 숨긴 재산 신고땐 최고 1억 포상

관세청은 관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주어지며 지급률은 징수액 2억원이 하까지는 5%, 2억원초과~5억원이 하는 3%, 5억원초과는 2%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